

강북구, 탄소중립 열일(10+1) 실천운동 전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행동 실천 약속(10가지)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열일(10+1) 실천운동'을 펼친다.

'탄소중립 열일(10+1)운동'은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를 위한 행동 과제를 실천한다고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필수라는 뜻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만큼 흡수량을 늘려 결과적으로 제로(0) 상태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실천운동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10가지 행동하기와 1가지 참여하기로 구성된다. 10가지 행동수칙은 ▲ 고효율 에너지제품 사용 ▲ 대기전력 차단 ▲ 가전제품 사용시간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끄기 운동에 참여한 구청사 모습.

감소 ▲ 적정 실내온도 유지 ▲ 친환경 운전 ▲ 대중교통 이용 ▲ 음식물쓰레기 줄이

기 ▲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 분리배출 철저 ▲ 물 절약 실천이다.

1가지 참여하기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5만원 상당의 유인책이 지급된다.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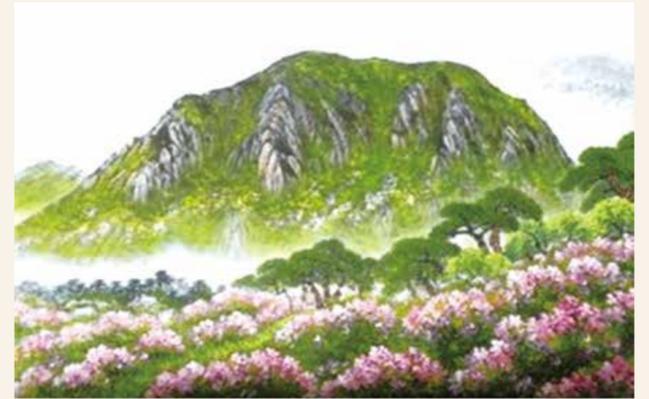
탄소중립에 뜻을 같이 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환경>기후위기 대응 실천 서약하기에서 동

참할 수 있다. 세부 실천약속 중에서 나만의 행동수칙을 고르면 된다. 수칙 선택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예상량이 나타난다. 나의 다짐을 담은 서약하기의 종료와 동시에 에코마일리지 참여화면으로 연결된다.

구는 공공기관에서 출선수범을 보인 후 자발적인 주민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민실천단 등 환경지킴이와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모든 상황과 영역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줄이기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에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북일보 창간 28주년 기념 축시



주민의 영원한 꽃으로!!

인수봉의 정기로
 만장대의 관용으로
 면면히 이어 온 동북일보
 지령 1,500호로 창간 28주년!



이진호 시인

장년이 되었구나!
 장하다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그동안 손잡고 함께 한
 강북과 도봉의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 올라
 훌륭한 꽃으로 피었구나!

김태유 화백
 정론과 정필로 언론의 사명을
 꽃으로 아름답게 펼쳐 다오!

이제 우람한 장년으로서
 아품일랑 지위버리고
 도봉과 강북의 새 얼굴
 멋지게 아름답게 그려다오.

지령 1,500호 창간 28주년
 주민의 마음모아 축하한다.

주민의 영원한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라!

<문학박사 본지 고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제대로 진행했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서울시의 계획이 무색할 따름이다. 주민의견을 모으는 일은 행정의 입장에서 무척 번거로운 일이지만, 정책의 지속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좋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등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현안사항 검토 회의를 열고, 녹지연결로와 인접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기자 dobongnews@naver.com>

도봉구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주민 반대 부딪혀

도봉구청-주민편익증진, 생물종 다양성 증진 기여 지역주민-실효성 의문, 1,700여명 반대 서명 맞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단절된 녹지축 조성을 위해 자치구마다 생태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도봉구 해등로 34길(방학동 산87-2) 일대에 녹지연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방학3동과 쌍문1동을 지나는 길 양 옆에는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녹지연결공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지여에 나선 것. 해등로 녹지연결은 서울시가 기존의 분리된 산책로 연결을 위해 높이 6미터, 폭 15미터, 길이 30미터의 생태다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위해 도봉구는 올해 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 본 주민들은 말쑥한 나무를 베어 내는 것에 항의하며, 나무보호대를 감싸는 등 공사를 막아냈다. 이어,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생태다리를 만들면 북한산 정상을 바라보던 자연 경관이 가려진다면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주민들은 나무 60주 이상을 베어내고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 자체가 자연을 더 훼손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봉구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에 설계를 마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관련부서 협의 등 설계심의와 도



▲ 해등로 34길 일대에 조성하는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감도.

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모두 마치고 3월초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쯤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현재, 서울시 예산 31억 5천여만 원으로 진행한 공사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반대이견은 ▲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한 주민의 정보 접근 제한과 의견 수렴 미비 ▲ 수십 년 동안 자생해온 수십 그루의 나무를 잘라낸 공사 방식이 생태적이 않다 ▲ 기초성된 방학로 녹지연결로, 초안산고 등의 생태

적 기능을 보면 녹지축보다는 산책로나 보행로의 비중이 높다 ▲ 도봉산과 쌍문근린공원 녹지는 이미 수십 년간 독립 생태를 유지하고 있어 연결 후, 실익이 크지 않다 ▲ 녹지연결 후 멧돼지, 고라니의 출몰로 민원 발생

예상 ▲ 삼각산의 경관 가치 훼손 등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3일 오전 10시 6분, 쌍문1동의 반상회 밴드에 이를 뒤인 5일 오후 2시에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이 글의 조회수는 40명 정도였고 설명회에는 쌍문1동 주민 4명, 방학1동 주민 2~3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사업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주민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주민의 의견이 공사 내

용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등로 녹지연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강우근 주민은 "오히려 녹지를 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일뿐더러 이 통로는 자칫 멧돼지 등 유해한 야생동물이 주택까지 넘어올 수 있는 위험한 다리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자 주민은 "여기서 오르는 백운대 경치가 얼마나 좋는데 아무도 남들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낸 세금을 이렇게 쓰라고 내는 건 아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원녹지와 구경만 자연생태탐장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주민 면담 및 의견수렴 기간을 하는 동안 일시 사업을 중지하겠다. 그 이후 대표성 있는 주민 면담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단절된 녹지연결 조성사업의 일환이며,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분명히 좋은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은

정론지필·민의를수렴·공정정보 (주) 동북일보 창간 28주년 및 지령 1500호

동북일보

함께한 오늘,
함께할 내일.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해온 동북일보 28주년, 지령 1500호
감사합니다.

동북일보

운영위원회·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자문위원회 一同

도봉구, 불법 주·정차 민원 '주차장 공유'로 풀어

교회 부설주차장을 교회 측이 승인한 주차안 동안 지역 이웃을 위해 무료 개방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주차관리팀이 불편과 민원을 빚어왔던 지역의 주차문제를 풀 새로운 활로를 마련했다. 도봉구청의 중개 노력으로, 한일교회와 세영운수(택시회사)가 주차장 공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2월 25일(목) 치러진 이번 협약에서, 도봉구 방학1동에 소재한 한일교회는 3월부터 부설 주차장 5+a면을 교회(예배)행사가 없고 교회측이 승인한 주·야간 동안 지역 회사 및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 2월 25일 한일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세영운수(좌)·한일교회(우) 간 주차장 공유 협약 모습.

구는 이번 주차장 개방으로 개방에 필요한 안내판 설치와 주차 구획선 정비 등 시설공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향후 이같은 대형교회 및 유흥부지의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봉구는 현재도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고심 중'이다. 구는 주택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교회 주차장 중 주차 여유가 있는 시간대나 장소를 적

극 발굴해 개방을 설득하는 한편, 매입입대 주차장의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공유하는 특수사업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나눔과 공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이웃을 위해 힘든 결정을 해주신 한일교회 관계자, 그리고 교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도봉구, 2021년 생애주기 기후위기 대응 구민 교육강사 모집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환경지킴이의 몫을 해낼 것 기대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3월 22일(월)까지 구민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 기후위기 대응 구민 교육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3월 22일(월)까지 15명(예비합격자 포함 20명)을 모집인원으로 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양성과정 및 면접을 거쳐 구민 교육강사를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구민은 2021년도 도봉구 기후·환경 구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도봉구는 지난 2020년 9월 10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1,342천 톤을 감축해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한 탄소중립 선도 자치구로서, 이번 프로그램 역시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전략 7대 전략 중 하나인 '녹색교육' 활성화를 일환으로서 마련했다.

교육은 동북지역 환경교육 허브인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특강과 수업 준비를 위한 전 과정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총 10차시 과정(20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수업은 마이크로 티칭(Microteaching)법을 활용해 참여자가 직접 기획한 교안으로 모의 수업을 진행한 뒤 전문가가 준비단계, 수업단계, 평가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양성교육 전 과정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발자는 '도봉구 기후·환경 구민강사' 강사증을 부여받는 동시에, 함께 관내 학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구는 우수 활동가에 한해 2022년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번 선발된 구민강사는 오는 12월까지 유아, 청소년, 성인 대상 기후·환경 교육강



▲ 도봉구 2021년 도봉구 생애주기 기후위기 대응 구민교육 강사 공개모집 홍보 포스터.

사로 참여해 방문 및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인식전환을 위한 주민 홍보·캠페인 등 각종 활동들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도봉구 '녹색교육' 활성화를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퍼실리테이터 3만 명 양성의 전초 인력으로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환경지킴이의 몫을 해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도봉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hyunmu2001@dobo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부족 높아지면서 학교와 마을 단위에서 관련 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2021년 신(신)기후체제 원년을 맞아 우리 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예정이니 에너지 절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 공감대 확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북문화재단, 마티네 콘서트 I <우리가 사랑한 음악들> 개최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일 예정

강북문화재단은 마티네 콘서트 I <우리가 사랑한 음악들> 공연을 오는 3월 17일(수) 오후 3시 네이버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한다.

이번 마티네 콘서트 I <우리가 사랑한 음악들>은 2021년 강북문화재단의 첫 번째 기획공연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모인 디에스 그룹을 초청하여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팬텀싱어 시즌1에 참가했던 바리톤 박정훈, 테너 정주영, 테너 이성진, 베이스바리톤 박진현 4명으로 구성된 디에스는 기존 클래식 앙상블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들려주었던 이태리나 스페인 노래에서 벗어나, 정통 클래식에서부터 해외 유명 Pop음악, 월드뮤직, 그리고 우리 가요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 특별출연하는 소프라노 송은혜는 최근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 8>에 실력자로 출연해 미국의 뮤지컬 배우 브래드 피리를 함께 공연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강북문화재단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향유 기회가 축소되고



▲ 포스터.

피로감을 느끼는 구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하여 화제가 될 바 있다. 공연은 네이버TV, 유튜브의 강북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문의 02-994-8548)

강북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중점 단속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 준법운전 당부

서울강북경찰서(총경 임만석)는 이륜차 교통안전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6년 연속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18년 감소 이후 불규칙한 등락을 반복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이륜차로 사망한 사람 3명 중 1명은 배달업 종사자로, 이륜차 배달 종사자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장면.

이륜차 집중단속은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46개소에서 연중, 매일 실시한다. 중점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다.

중점 단속 항목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번호 미착용
-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횡단 보도 주행
-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가리는 행위, 더러워져 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 부착 운행

▶ [이륜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 신호위반, U턴 위반(중앙선 침범)
- 급차로 변경, 난폭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또한 실시하며, 이륜차 소음기·불법 부착물 등 불법개조 등도 지자체·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단속도 확대한다.

교통위반이 많은 교차로를 선정하여 주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여 단속(고정형)하거나 순찰차 안에서 서행하면서 캠코더로 촬영하여 단속이동형할 예정이다. 이동단속 중인 순찰차에는 영상 단속 중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다.

강북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며 "이륜차 준법운전"을 당부하였다.

도봉구, 직원들의 지친 마음 위로할 전문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각종 업무 스트레스 등 정서적 고통 덜어내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3월부터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업무과다·갑질·괴롭힘 등 직장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마련했다.



▲ 3월 8일 도봉구 상담지원 담당(좌)을 만난 직원(우)이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신청절차와 상담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구는 직장생활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과 직무 만족도 저하가 곧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판단하고,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 직원 대상 온라인 종합 스트레스 검사(MSS 진단) △상시 셀프진단 프로그램 △개인 1:1 심리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전 직원 대상 스트레스 검사는 3-4월 중 시행하며, 105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직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개인 1:1 심리상담은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협약된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대면, 비대면 전화상담을 선택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직장(업무) 스트레스를 비롯해 개인 생활적 내용까지 자유로움 상담내역 및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된다. 1:1 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은 상담 매니저가 연결되어 일정을 조율하고, 이후 서울·경기 지역의 전문상담센터에서 대면·비대면 선택 상담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상시 셀프진단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직원들은 언제든지 PC, 모바일로 접속해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번아웃 증후군(소진) 정도를 진단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본연의 행정업무에 더해 작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긴 업무 부담이 겹치며 직원들의 심적 고통과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덜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 QR코드로 '마음건강 선별검사'

고위험군 판단되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에 치료연계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정보누리(QR코드)를 활용한 '마음건강 선별검사'에 나선다.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를 찍으면 마음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 두 가지의 마음건강 설문지가 있어 진단 받길 원하는 정보무늬를 찍으면 된다.

제공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경향성(Mini-Plus) 검사도 하고 치료 필요할 경우 지역 의료기관 등에 연계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고, 의지, 행동 등을 확인하는 필수 진단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울적함을 느끼는 지역주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복지 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산후 우울증을 앓는 산모를 위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정보무늬를 담은 포스터를 전달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채널 매체를 통한 비대면 검사 알리기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마음건강 선별검사는 답답함, 울적함, 무기력 등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코로나 블루(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비대면 마음 건강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악성 민원인 대처

비상벨 누르면 112상황실로 자동 연결, 경찰서와 실시간 음성통화도 가능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경찰서와 연계한 '악성 민원 대응용 비상벨'을 설치했다.

그간 악성민원인 발생하면 대민접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민원실을 찾은 일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컸다. 이번에 모든 동 주민센터에 비상벨이 가동되면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비상벨 시스템은 민원창구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 연결하는 방식이다. 인근 지구대와 순찰차로 실시간 상황이 전파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무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 상황실 접수자와 민원 공무원이 음성통화도 할 수 있다.

지난해 강북구는 악성민원인의 폭행, 폭언으로부터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구청 종합민원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특이민원의 현장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대응반도 편성했다. 민원담당 직원들 간 역할과 행동요령을 세밀히 분담해 발 빠른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악성민원인 진정·중재, 위법행위 고지·제지, 현장촬영, 내방객 대피 안내 등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행동수칙에 담았다.



▲ 우이동 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작동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악성민원 대응 비상벨은 일선공무원과 민원창구를 찾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신뢰감 높은 주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모든 구민에 자전거 보험 혜택 제공

전국 모든 곳에서 적용...4주 이상 상해진단·입원, 사망, 후유장애 등 보장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4월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우이천에서 한 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구민들에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 동안 전입한 구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 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300만원 ▲4주 이상 상해 10~50만원 ▲입원료로(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1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만 15세 미만,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시 만 14세 미

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구민 개인이 가입하며 타 보험과 중복해 수령 가능하다. 사고 후 청구서 및 진단서 등 준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이 입금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를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02-901-5925 또는 DB 순회보험 ☎02-475-8115)으로 전화하면 된다.

동북일보 창간 28주년, 지령 1500호 기념

창간 28주년, 지령 1500호를 축하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나, 이웃,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이 중심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사장 우종오 부이사장 이충열

이사	이명우	이사	최종국	감사	최종국
이사	김명기	이사	한상운	감사	왕성수
이사	박성학	이사	국춘규		
이사	정경구	이사	윤영주		

강북새마을금고

도봉구, 주민자치회 도봉구 전체 14개 동으로 확대

2017년부터 시행한 도봉구의 주민자치회 사업, 여러 성과 이뤄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그간 9개 동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020년 12월 20일 5개 동(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에서 추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는 도봉구 14개 동 전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 2019년 6월 1일 신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도봉구 방학3동 주민총회 모습.

이번 확대 실시는 주민참여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한편, 14개 동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성과 공유 등을 통한 선순환적 전환을 치러내 그 의미가 크다.

구는 2017년 △쌍문1동 △쌍학1동 △쌍학2동 △쌍학3동 △창2동 △창5동 6개 동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창4동 △도봉1동 △도봉2동 3개 동, 2020년 12월 5개 동 △쌍문

2동 △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 까지 전(全)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도봉구 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스스로 지역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의제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도봉구는 2019년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2020년에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에서 자치분권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 선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향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협의·자문기구인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봉형 주민자치회를 설계하고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발전 방안들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주민세 환원금 및 시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 범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탈 플라스틱 캠페인 '고고챌린지' 참여

박겸수 강북구청장, 탈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다회용품 사용 다짐 및 독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일(목) 탈 플라스틱 문화 확산을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동참했다.



▲ 박겸수 강북구청장.

챌린지는 지난 1월 환경부로부터 시작된 캠페인으로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참여자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1가지와 해야 할 것 1가지를 담은 메시지를 담아 '고, 고'의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실천을 다짐한다.

이날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김충철 김천시장에게 챌린지를 이어받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손수건 사용은 생활화하 '고' "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한 다음 주자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권진욱 변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장,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인 임지 스님을 지목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탈플라스틱 운동에 구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후손들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우리 강북구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직원 상조회, 4년째 지역사회 클린캠페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지역사회 클린캠페인(청소)가 주요활동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 직원 상조회(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임)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클린캠페인(청소)을 실천하고 있다.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상조회가 관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매월 둘째주 월요일이면 복지관 전 직원이 출근시간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강북구 변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마주치는 지역주민들과 눈 맞추고 인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강북구 내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이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논의하였고,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지역사회 클린캠페인(청소)가 주요활동으로 선정된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은 잠정 중단되었으나 지역사회 클린캠페인(청소)은 휴한기, 휴식기, 눈, 비 유무에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 변화는 발생될지라도 강북장애인복지관 상조회 공익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2021년 강북장애인복지관 직원 상조회 박미경 회장은 "복지관 직원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는 원더풀 피플(Wonderful people)이 되어보자는 의미에서 2021년 강북장애인복지관 상조회의 메인테마는 '제로웨이스트'로 정했다"고 전하며, "강북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클린 캠페인 실천이 강북구 변동, 더 나아가서는 강북구 지역사회가 더욱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해질 수 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창동역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보고회 참석

문화예술공방 주변을 열린 커뮤니티 소통공간으로 조성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3월 10일(수) 구청 간송홀에서 '창동역 동측(1번출구)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보고회에서 도봉구와 음악도시 창동의 이미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봉구는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에 조성된 광장 및 문화예술공방 주변에 주민들이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소통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벤치, 공간가림막, 미디어폴, 키오스크, 버스킹무대 등의 시설물 등에 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인근 상인들과 협의될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창동역 고가하부 활성화 사업으로 창동 신경제사업의 집중사업 구역과 기존의 상업지를 연계하고, 창동역

인근이 도봉구를 처음 찾는 외부인들이 음악도시 창동의 이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색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봉구, 코로나19 이동시설에서 17명 집단감염

아동과 함께 간식 먹으며 활동 시설종사자 가족 감염 후 전파

도봉구 소재 아동시설에서 17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3월 9일(화) 관내 아동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16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12일(금)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총 17명이 됐다. 아동시설 관계자 가족 1명이 9일 최초 확진 후, 10일까지 3명, 11일에 1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도봉구 선별진료소는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70명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진행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6명, 음성 47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에 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일 2회 이상 자연환기를 하고 손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설종사자의 가족이 감염되면서 해당시설의 동료와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아동과 지도교사는 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머물며 함께 간식을 먹고 활동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보건소는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해당시설에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가족 간 전파로 인해 직장으로도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소에 관계없이 평소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아동 시설에서는 수시로 자연환기를 하고 발열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도봉구 「부동산거래실무 e-book」 자체 제작 공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개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부동산정보과가 알송답총 수시로 개정되어 헛갈렸던 부동산거래 알짜 정보들을 대방출한다. 도봉구가 '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 당사자도 꼭 지고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수록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을 3월 9일(화)부터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 도봉구 부동산정보과가 자체제작하여 3월 9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동산거래실무 e-book' 이미지

이번 전자책은 제작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도봉구 부동산정보과의 기존 축적된 노하우로 자체 제작해 그 의미가 크다. 총 86페이지, 자료편집과 제작에만 넉달이 걸렸다고 하니 그 노력을 알 만하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구는 개정 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컸다. 이번 e-book(전자책)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개발했다. 『부동산거래실무 e-book(전자책)』은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과 부동산 중개 실무내용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구는 전자책서비스를 계기로 주민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문의 없이도 인터넷에서 24시간 부동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파일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개인이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신고 내용 정정·계약해제 신고 방법 △주택 구입 시 제출해야 하는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등 증빙서류 안내 △전·월세 계약기간 만기 전 계속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 후에 해야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요령 등의 정보들이 실렸다.

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편집-출력-디자인-출판 신문 인쇄의 모든 것 한국씨티에스가 책임집니다

31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시)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윈스투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민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362-1199 / 영업부 02)362-6677 / 전산실 02)362-5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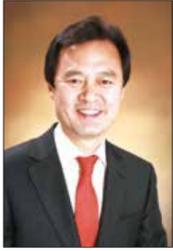
제작센터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온수동)
Tel. 02)2684-3377

한국씨티에스

축 사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

박 경 수
강북구청장



▲ 박경수 강북구청장.

으로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발전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구정발전의 든든한 길잡이로써 지역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강북구는 동북일보의 성원과 격려 속에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으로 희망 강북 실현을 위한 항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산악전시체험관, 국제규모의 인공암벽장 개장 등이 차례대로 예정돼 있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한층 더 높이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강북구의 변화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이 있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주길”

이 용 균
강북구의회 의장



▲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

제공하는 등 민·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성실한 수행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지속적인 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강북구의회는 다방면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일보’가 서울 동북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며, ‘현장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와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동북일보’의 지령 1,500호 및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수 구청장, 김다현양 찾아 격려 통해 용기 심어줘

첫 휴가를 나온 오빠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한 때 보내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미스트롯2 결승전이 열리는 3월 5일 오전 11시 50분 강북구의 번1동에 있는 화로구이 숯불갈비를 찾아 청학동 소녀 김다현 양을 격려를 해주며 용기를 심어주었다.



▲ 박경수 강북구청장(좌)과 김다현양(우)이 함께한 모습.

김다현양은 2020년 9월에 열린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하고 TV조선 ‘미스트롯 2’ 경연에 참여해 화제를 낳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의 청학동 소녀이지만 마스터들의 편과 관정으로 탈락 위기까지 처했는데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결승까지 진출했다.

3월 5일은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지만 김다현 양은 아버지 김봉곤 훈장과 어머니,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오빠와 함께 강북구의 음식점을 찾아 오붓한 한 때를 즐겼으며, 이 소식을 접한 박경수 강북구청장과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의장은 김다현 양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음식점을 찾아 덕담을 나누었다.

이날 김다현양은 경연대회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있는 노래 모습과는 달리 초등학교생으로서의 천진난만하고 오빠를 무척 따르는 모습과 예절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주변에서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는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었다. 김다현 양은 가족들과 음식점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1시간여 만에 방송곡으로 떠났다.

또한, 김의경 늘사랑행복나눔 회장의 주선으로 강북구 수유동으로 이사를 해 강북구민이 된 김다현양에게 강

북구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서두를 꺼낸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김다현 양의 팬이다. 가냘픈 몸에서 어찌 그런 카리스마 있는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오늘 결승전에서 열심히 해 진, 선, 미 중 하나가 돼서 한국의 트롯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현양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팬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고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아들과 딸과 같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려 온 박문수 전 강북구의장은 김다현양과 같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승전에서 진은 양지은, 선은 홍지은, 미는 김다현양이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한일병원 앞 도로 깊이 1미터 싱크홀 발생

왕복 2차선 도로에 깊이 1m 같은 장소에서 세 번째 발생

지난 3월 8일(월) 쌍문동 한일병원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땅개짐)이 발생해 긴급히 인근 주민들과 차량통제가 이루어졌다. 다행히 싱크홀과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봉구는 싱크홀 인근을 통제하고 즉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작년부터 같은 위치에서 싱크홀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번으로 세 번째이다. 상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나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의 우수관이 파손돼 하수관로 공사 영향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의 설명대로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같은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싱크홀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람이 다친 적은 없었지만, 지난 싱크홀 발생 때는 운행 중이던 택시의 바퀴가 걸렸다 빠져나온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세 번째로 발생한 이번 싱크홀은 맨홀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였다. 인근 지역의 한 주민은 “별거 아닌 것처럼 긴급히 복구를 해놓고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싱크홀은 부담스

러운 현상이다. 처음이 아니어서 더 불안하다. 이리다가 대형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지나가려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다. 무척 신경 쓰인다”며 우려했다.

마른땅에 날벼락인 싱크홀은 지반침하의 한 형태로서 반 내외 공동이 생겨 지표면이 갑작스럽게 내려앉아 구멍이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반 특성상 자연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은 드물다고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도심지 싱크홀은 일반적인 싱크홀이 아닌 ‘지반 함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지의 지반함몰은 주로 지중에 설치된 시설물의 노후화와 지하 공간 개발과정의 공사현장 등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를 보면 전국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도는 전체의 41.8%, 노후 상수도도는 전체의 32.4%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노후화하고 있어 부식으로 유출된 물에 의해 점진 지반이 잠식될 수 있으며, 지반함몰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4년 기자 dobongnews@naver.com)

축 사

지금까지 보여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끊임없이 발전하길

이 동 진
도봉구청장



▲ 이동진 도봉구청장.

동북일보의 창간 28주년을 도봉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북일보는 1993년 창간하여 ‘너와 나, 마을을 담은 신문’이라는 기조 아래 서울 동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마을 곳곳의 소식을 28년이라는 긴 시간 최선을 다해 알려왔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00호를 결간 없이 발행하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동북일보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작년부터 유례없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정보의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주민들의 지역소식에 대한 갈증 역시 높아졌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방역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상황을 발 빠르게 주민들에게 전달한 동북일보, 그리고 지역신문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일보가 지역 현안에 대한 깊

은 분석과 대안 제시로써 지방분권과 지자체가 나아가야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보여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끊임없이 발전해가길 바랍니다.

도봉구도 민선7기 서울동북권의 거점 ‘서울아레나’를 위시한 ‘창동 신경제중심지’ 착공으로 역동적인 문화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힘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의 완성’을 만들어갈 여정에 동북일보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북일보와 독자 여러분의 애대, 항상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동북일보의 창간 28주년을 1,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주시길

박 진 식
도봉구의회 의장



▲ 박진식 도봉구의회 의장.

따스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 동북일보의 지령 1,500호 및 창간 28주년을 33만 도봉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북지역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북일보 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동북일보는 1993년 창간 이후 도

봉, 강북지역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회로에 락을 함께 하며, 지역의 주요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주민과 호흡하고 소통해왔습니다.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북일보가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보도와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주시길 바라며, 동북일보만의 원

칙과 비전에 입각한 보도로 지역대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14명의 의원은 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과 교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민들의 삶에 희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여정에 동북일보가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봄의 시작과 함께 맞이한 지령 1,500호와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동북일보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사장님께,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컨설팅

창업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창업 후 안정화 시기까지 1:1 창업컨설팅과 함께하세요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현장체험

실제 사업장에서 성공한 사장님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사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멘토-멘티 매칭 후 사업장에서 정보 운영 체험

자영업클리닉

전문가가 사업장을 찾아가 SNS마케팅부터 세무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진단 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컨설팅 제공

동행프로젝트

성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부터 문제해결까지 단계별 컨설팅과 필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6개월간 전문가 협업을 통한 컨설팅과 비용 지원

자영업협업화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 협업체를 구성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업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90% 이내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정리를 검토중인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사업정리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지원합니다.

*폐업 시 절세방법, 취업 컨설팅, 임대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는 서울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창업준비부터 자금지원, 사업어려움 해결, 경쟁력 강화, 업종전환, 폐업 및 재기 지원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누리세요!

I · SEŌUL · U 문의: 1577-6119 www.seoulsbdc.or.kr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축 사

묵묵히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천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 천준호 국회의원.

제가 강북구 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참석하여 인사를 드렸던 동북일보 창간 행사가 기억이 납니다. 동북일보 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강북구갑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많은 분들의 일상이 변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지역사회 소식을 전달해 준 동북일보가 있어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동북일보는 지령 1,500호가 발간되기까지 결간 없이 언제나 주민의 대변자로서 함께해 왔습니다. 동북일보가 묵묵히 지역신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듯이 저 또한 변함없이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갑 국회의원 천준호입니다.
동북일보의 지령 1,500호와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북일보는 그동안 올바른 시선으로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동안 동북일보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동북일보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축 사

균형 잡힌 시각과 수준 높은 기획력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인재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 인재근 국회의원.

동북일보 지령 1,500호 및 창간 28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북일보는 1993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로 30년 가까이 지역주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동북일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동수 대표님과 서울 동북권의 취재와 보도에 애쓰시는 신문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강북·노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인 동북일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주간신문으로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함께 하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의 전문 언론사로서 균형 잡힌 시각과 수준 높은 기획력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변함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며, 따뜻한 복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북일보 지령 1,500호 및 창간 28주년 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너와 나, 지역을 담은 신문 '동북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었고, 삶의 현장을 함께해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 박용진 국회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코로나의 위기에 맞서고 있고, 이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북일보가 지금처럼 앞장서 지역 여론을 선도하고, 시의를 헤아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일보가 '지령 1500호'를 디딤돌로 삼아, 2000호, 3000호 발행을 넘어 지역과 함께 지속성장하는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의 동반자 동북일보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북일보를 있게 해주시는, 동북일보를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만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강북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동북일보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1500호 발행이라는 경사에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 이렇게 동북일보를 성장시킨 최동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동북일보가 창간되고 어느새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고 20여 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저도 정치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의 형성으로 동북지역의 역사로 기록될 것

오기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 오기형 국회의원.

동북일보 창간 28주년 겸 지령 1500호 발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 동북부의 또 다른 부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는 본래 서로 밀접한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도봉구의 창동 아래나, 노원구의 상계 바이오단지들 중심으로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도봉구를 잇는 우이방학정철, 도봉구와 노원구를 잇는 동북연장선(방학-

마들을 통하여 교통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일차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가고 교통의 연결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동북일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늘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지역의 작은 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분들의 노력을 통해 동북지역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대미문의 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만, 올해 말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선의원으로서 동북일보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북일보 창간 28주년 겸 지령 1500호 발간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여론을 형성해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해주길”

정양석
국민의 힘 사무총장



▲ 정양석 사무총장.

앞으로도 지역의 따뜻한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질책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일보의 발전과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또 여론을 형성해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도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내수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북일보가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는 대표 지역 언론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동북일보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8년간 동북일보는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1500호에 달하는 지면을 제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균형이 있고 정직하며 깊이 있는 기사로 곳곳에 언론인의 길을 걸어오신 최동수 대표님과 기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북일보는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발로 뛰면서 주민의 눈으로 지역 소식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취재해왔습니다. 지역 사랑을 담은 기사를 위해 쏟은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또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통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강북구, 비대면 민방위교육 실시

올해 현혈 참여 대원 등에 현혈증서 사본 제출 시 교육 이수료 인정



▲ 스마트민방위교육 이용절차 사진.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대원 및 대상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로그인 후 강의를 들으면 된다. 강의는 민방위 대원의 임무·역할과 감염병 예방, 심폐소생술 등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시청 후 객관식 평가에서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민방위 대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1년 교육을 총 3회 운영한다. 교육은 상반기에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반기에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구는 교육 전 대원들에게 모바일을 통해 교육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회의 교육 중 1회만 이수하면 되나 PC,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하면 서면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현혈에 참여한 대원은 동 주민센터에 현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코로나19로 현혈 수급이 어려워진 데 대한 조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일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 비대면 형식의 민방위교육을 통해 모든 대원이 안전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민방위교육 및 현혈 참여에 민방위 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강북구청사 등 공공기관에 1회용컵(플라스틱, 종이)은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 텀블러 등을 이용해주세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수칙

- 첫째,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안하기에 앞장섭니다.
- 둘째, 개인용 텀블러, 머그컵 등 다회용품 사용을 실천합니다.
- 셋째, 투명페트병과 비닐의 별도 분리배출을 생활화합니다.

박용진 의원, 대선 1년 전... '민주당 정치적 고향' 광주 방문

"더 크고 단단한 대한민국 위해 정치인은 이념에 갇히지 않아야"

박용진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1년 전인 지난 9일 광주를 방문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9일 오전 대선 1년 전 첫 행보를 광주를 찾았다. 박용진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 시민의 마음을 얻어야 당심을 얻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첫 행보를 광주에서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광주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이념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제하에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해방되고 난 뒤 그 업적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이념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한다"면서 "일제하에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해방되고 난 뒤 그 업적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미서훈 독립유공자 신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재성기념사업회는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에 73인의 독립 운동가들을 발굴하여 서훈을 신청했지만 지난 3월 28인만 서훈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서훈을 받지 못한 45인의 독립유공자의 서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도봉구의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에 감사패 전달

도봉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도봉구의회(회장 박진식)는 12일, 고려대학교안암병원(원장 박종훈, 이하 고대안암병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과 강철웅 의원,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과 고려대학교의료원 이민우 연구교수, 고대안암병원 최준희 건강검진팀장 등이 참석했다.



▲ 박종훈 원장(우3)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박진식 의장(좌3)이 강철웅 의원(우2), 참석자들과 함께한 모습.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6월 고대안암병원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며 도봉구 내 의료 사각지대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고대안암병원에서 도봉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도봉구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의료 사각지대의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이 강 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구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도봉구의회 의원, '해등로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현장 방문

지난 8일, 도봉구의회(회장 박진식)는 방학동 산87-16 일대에 조성 중인 해등로 녹지연결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는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더불어민주당, 쌍문1·3동, 장2·3동)을 비롯,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문2·4동, 방학3동)과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쌍문2·4동, 방학3동)과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방학1·2동), 고금숙 의원(국민의힘, 쌍문2·4동, 방학3동)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 생물종 다양성 증진과 산책로 이용 활성화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해등로에 녹지연결로를 설치하

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오는 10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산림·생태 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현장을 찾아 구청 부서 관계자 및 주민들과 함께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현황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신속한 코로나 종식' 등 약속

'건강한 도시 서울' '신속한 코로나 종식' '섬세한 돌봄 시장' '반값 아파트' '청년 출발자금 5천만 원' 약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건강한 도시 서울' '신속한 코로나 종식' '섬세한 돌봄 시장' '반값 아파트' '청년 출발자금 5천만 원'을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시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에서 열린 '합시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합시다 박영선 선대위, 선대위 이름이 '합시다'인데 과연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까요?"라고 자문한 뒤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우선 '건강한 도시 서울'을 약속하며 '병원·도서관·쇼핑센터·산책길·체육관 등 내 삶의 많은 것이 21분 안에 있는 건강한 도시 서울로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빠른 코로나 종식'을 약속하며 '건강한 도시 서울' '신속한 코로나 종식' '섬세한 돌봄 시장' '반값 아파트' '청년 출발자금 5천만 원'을 약속했다.

'기'로 5일 만에 따라잡았고 지금 한국의 인구 백령당 백신접종 속도는 앞선 유럽 국가들도 따라 잡아 이스라엘, 덴마크, 영국 다음으로 4위'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첫 여성 시장으로서 직장맘들을 위한 아이 돌봄과 유치원 무상급식, 어르신 돌봄까지 책임져 섬세한 돌봄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집 없는 설움을 해결하겠다"며 "평당 천만 원대 반값 아파트, 박영선은 한다면 한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합주어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끝으로 "청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 출발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의원, '오세훈 후보 땅투기 의혹' 기자회견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3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천준호 국회의원.

천준호 의원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평당 약 2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인근 땅의 토지거래가는 평균 100만 원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오세훈 일가는 소

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는 4,443제곱미터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상속받았는데,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천준호 의원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재 서울시장의 가족의 재산 처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한 것으로 중대 범죄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 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박진식 의장(중앙)과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중우)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는 장면.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공사 구간 인근 나무들도 훼손되고 있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설명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며 1,600여 명의 공사 반대 주민 서명부를 박진식 의장과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에 게 전달했다. 이에 박진식 의

장은 "2019년 12월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 부분이 아쉽다. 당분간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과 충분한 속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 여러 경로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훈 행정기획위원장은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의논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금숙 의원은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공사 중단 이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미션

비전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복지마을 만들기

B(BEST) 마을주민을 주체로 만드는 최상의 서비스
U(Utopia) 주민이 주민을 돕는 행복한 삶의 터전
N(Network) 마을의 다양한 주체간 연합과 파트너쉽
3 사람중심/관계지향/전문성

QR코드



복지관 바로가기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가깝고 따뜻한 복지관

스마트한 복지관 이용방법 안내

<p>복지관홈페이지</p> <p>www.bestbun3.org</p>	<p>인스타그램</p> <p>www.instagram.com/bestbun3/</p>
<p>페이스북</p> <p>www.facebook.com/bun.best/</p>	<p>유튜브</p> <p>https://www.youtube.com/channel/UCzAC3PV-k4hPUs3m4ANL-g</p>

삶이 어려울때, 함께 고민할 누군가가 필요하신가요?
마음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자랑하고 싶은 우리마을이 필요하시다면!
이웃과 함께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오세요!!

주소 서울시강북구오현로 208.302동(번동, 제3단지아파트)
연락처 (02) 984-6777~8

안광석 시의원,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 안광석 서울시의원.

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 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여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여행 코스나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에 소재한 여행사들을 포함한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면서도,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대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점은 아쉽다. 최근 과학전문기자 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재정자립도 향상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 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작년부터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대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공연과 대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셋째 날, 안광석 의원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행업의 매출이 급락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1차로 지원되는 15억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삼정 리모델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됐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7월 재개관 이후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오후에 실시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분과 관련하여 "문화본부장과 서울시향 경영본부장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올해 서울시향 사업 중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안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개관한 밀쿠사 전시관 관람 예약 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이나 전자기기에 취약한 시민들의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서울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동스택가의 전시장소를 잘 검토해서 미래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광석 의원은 "현재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역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백균 · 이상수 · 최미경 구의원, 민원 해결에 여야가 힘모아

4·19민주묘지입구역 인근 대체 주차공간 마련을 주문

지난 3월20일 강북구의회 이백균, 이상수, 최미경 구의원은 419민주묘지입구역 인근 민원현장을 국민의 힘 조윤섭 의원과 관련 부서 담당과 함께 방문했다.



▲ (오른편끝에서부터) 최미경, 조윤섭, 이상수, 이백균의원.

4·19민주묘지 입구 역에서부터 우이동주민센터를 거쳐 419민주묘지로 향하는 삼양로 139길은 대동전을 복개한 도로로 보도가 좁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곳곳에 지정되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백균의원은 "생명을 유지하기 합리적인 주차공간이 필요한 점포들에게 무작정 주차구역이 없어지는 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체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수의원은 "인근 419민주묘지역사 뒤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보자."고 의견을 내었다. 최미경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협치의

시대에 인근 상인,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서울시, 강북구청, 4·19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불찰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윤섭의원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당을 떠나 함께 힘 모으게 되어 감사하다."고 덧붙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은 4·19민주묘지역 인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020년도 419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기타 문화공연 등도 가능한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419민주묘지 입구역 인근 보도를 확장하고 자연스럽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넓어지게 되는 계획을 2021년 초 주민들에게 통보하였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활용하여 영업에 필요한 주차를 수년간 요금을 지불하며 사용해온 인근 점포에서는 대체 주차공간 마련을 주문하였고, 419도시재생 사업의 담당 부서에서는 보도 확장이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마련하는 것은 도로가 좁아져 현재의 위키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인에 의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현장 방문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스쿼시장 보수공사 완료현장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3일 오후, 강북웰빙스포츠센터(오현로31길 51) 스쿼시장 보수공사 완료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 유인에 의원(좌)이 스쿼시장 보수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함께한 모습.

이번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스쿼시장 보수공사는 지난해 12월 실시했으며, 보수공사 완료 후에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나 3월 2일부터 부분적인 운영이 재개됐다.

스쿼시장 보수공사는 시설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스쿼시장 바닥시설의 노후화로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벽면의 틈보도 또한 국제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용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됐었다. 이에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교체 공사가 실시됐으며, 이와 동시에 벽면의 틈보도 국제규격에 맞게 교체가 이뤄졌다.

유인에 의원은 현장확인에서 "스쿼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애써주신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북칼럼,21

휴대폰을 생각한다

김 용 철

본지논설위원 · 소설가



▲ 김용철 본지논설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국민의 대다수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약 82%의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약 70%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니 그런 정도라면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세계 1위가 아닐까한다.

지하철을 타보면 노인 석을 제외한 긴 좌석엔 거의 모든 승객이 스마트폰을 보고 듣는 경우가 허다하고 서서 가는 승객들도 비슷한 양상이다. 기하 우리나라는 아이티 강국이라고 해도 추후의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스마트 폰이 생겨 우리가 얻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가령,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전화보다 싼 요금으로,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상대방과의 의견이나 정보를 서로 교환한 다든지 카메라 대용으로 사진을 찍어 보

관한다든지 동영상 통해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있다든지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교환, 보관하고 심지어 그를 채팅방까지 만들어 많은 회원들이 서로가 서로의 정보나 의견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기하고 좋은

전화가 세상 어디 있었는가. 어디 그 뿐인가 웹스판 누르면 전자사전, 지도, 캘린더, 인터넷, 게임, 계산기, 날씨, 알람, 무비, 녹음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서비스가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으니 스마트폰이 바로 현대인이 만든 최상의

요술 상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 다시 말하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공해나 손실도 간과할 수 없이 많으니, 이 점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몇 가지만 그 실례를 들어 보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신문이나 종이책의 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근한 예로 몇 해전만해도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면 으레 무가지(無價紙) 신문이 손님을 반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그런 신문은 아예 없어졌다. 서점도 대형서점 몇 곳을 제외하면 거의 경영난에 봉착, 문을 닫은 곳이 허다하다.

책을 읽는 국민이 날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 필자도 소설을 쓰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소설책도 안 팔린다. 일본을 우리가 반일 감정 때문에 미워하고 있지만, 일본을 다녀온 많은 분들이 일본 지하철에서는 책을 들고 독서하는 손님이 스마트폰을 든 손님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책을 읽는 국민이 많은 나라가 진정한 문명국이다. 그런 나라가 보다 건전하고 융성하게 발전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일본은 작년에 노벨상 과학 분야에 2명

의 수상자를 내어 이 분야에만 무려 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고하니 이 분야에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길을 걸을 때도 이 스마트폰을 보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때 생기는 교통사고도 한 두건이 아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전화를 주고받는 운전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통화를 하는 셈이다.

휴대전화의 문명의 이기요, 현대인의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매체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남용하거나 오용, 그리고 과신하면 그만큼 그 부작용이나 사회적 공해와 손실이 지대할도 새삼 인식하여, 우리 모두 휴대전화 다루기에 큰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리라 할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들의 스마트 폰에도 남녀의 치부나 노골적인 성행위가 뜨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니 성교육 차원에서는 물론, 이런 걸 자주 보고 자라면 이성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지거나 순수한 이성관이 마비될 것도 큰 문제다.

부부간에도 이 스마트 폰에 걸려 오는 전화나 메시지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서로 알리고 하고 숨겨려고하는 갈등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파경이나 이혼으로까지 치닫는 사례는 너무 흔하지 않은가.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간통죄가 현제에 의해 폐지된 이후, 인테넷이나 SNS에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니까 이렇게 페이스 북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실명과 얼굴, 심지어 불륜현장의 사진을 넣고 공개하면 무려 5만여 명이 '좋아요' 하고 2만여 명이 댓글을 달아 배우자를 망신주거나 아주 매장시켜버리는 현실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재판보다도 무서운 게 SNS다.

재독 철학자이며 베를린예술대학 교수인 한국인 한 병철 씨가 최근 잠시 귀국,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 안 터지는 그리스 오지로 2주간 여행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애인과 파경(결별)을 겪었는데, 그 해어진 원인이 2주간 서로 소통이 안 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2주 만 소통이 안 돼도 상대방을 의심하고 헤어지자는 발상, 그런 현대인의 뇌리 한복판에 휴대전화의 영향이

필요 불가결한 매체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남용하거나 오용, 그리고 과신하면 그만큼 그 부작용이나 사회적 공해와 손실이 지대할도 새삼 인식하여, 우리 모두 휴대전화 다루기에 큰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리라 할 것이다.

이용균 의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 참여

불가피하게 대면 근로를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게 고마움과 응원 전해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3월 8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 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등 불가피하게 대면 근로를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게 고마움과 응원을 전하는 캠페인이다.

이용균 의장은 직접 손글씨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 응원문구를 새겨 넣은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 챌린지에 동참한 이용균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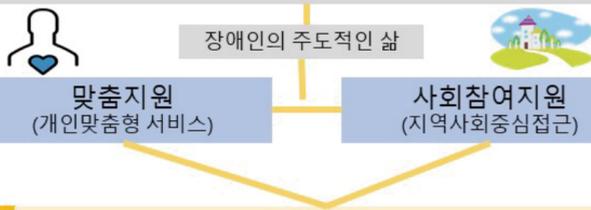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에도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일상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필수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수 강북구청장의 지극으로 챌린지에 동참한 이용균 의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과 강북구의회 이정식 부의장, 최치효 의원을 추천했다.

2021년 강북장애인복지관 선택과 집중

더불어 행복하게!

친숙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보통의 삶



- 사람중심·사회모델·지역사회접근의 실천
- 최중증·중복 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
- 성인 장애인의 주도적인 삶 지원
- 지역사회 연결하기(Connecting) "연결의 달인"

유연성+탄력성+창의성

환 대 (정성스러운 태도로 반갑게 맞이함)

- 장애인복지이슈
 - 장애인구 고령화 및 탈시설 정책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
 - 장애인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자립복지서비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 팬데믹 상황 속 서비스대응체계 운영을 통한 장애인 고립방지

장애인복지환경변화



동북일보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강북구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

접종순서
우선 접종 대상자 먼저! 건강한 사람은 천천히!

- 1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 장애인 등)
- 2 만성질환자, 고령(65세 이상)
- 3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4 접촉위험자 (택시, 버스 등)
- 5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 6 집단거주자 및 동시자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도봉
2021년도 도봉사랑상품권 발행안내

2020년과 달라진 점

- **하나로마트창동점 상품권 사용제한**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 위해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도봉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직 미사용하신 상품권 잔액은 2021.5.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변경 : 기존 5년 → 3년**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21년 2월 4일
할인율 : 10%
구매한도 : 1인당 월 70만 원(보유한도 : 200만 원)



문의: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4